

44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

Chapter

창 32장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 54장 (주님의 시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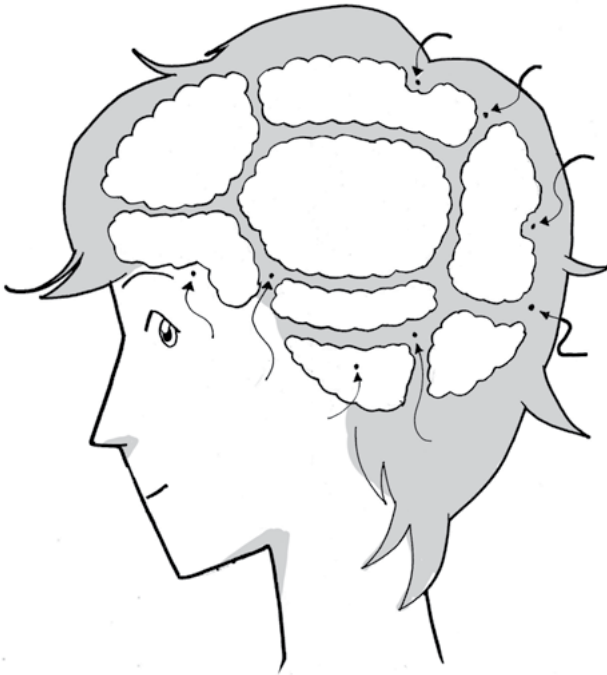
오늘 배울



말씀

1. 신령한 것을 인간적인 피나 방법으로 얻을 수 없음을 압니다.
2.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는 분임을 압니다.

마음 열기



혹시 세상이 모두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에 나 홀로 깨어 있어 본 적 있나요? 혹은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때가 있나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이 홀로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내 속에는 무슨 생각과 느낌, 바람이 있나요?

내 머릿속을 표현해 보세요.



말씀을 이해하기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과 신령한 것을 간절히 원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한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했지만, 문제는 야곱이 항상 그것을 자신의 피와 수단, 방법으로 얻으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야곱은 형 에서의 원한을 샀고, 그 후 많은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두 명의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명의 아들과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20년 만에 외삼촌의 집에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된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피할 계획을 세우면서 주님께 자신을 구해줄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형의 마음을 자기 방법으로 풀어 볼 생각으로 형에게 많은 선물을 여러 차례 나누어 보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전히 자기 피와 방법을 의지하는 야곱을 볼 때 인간은 참으로 변화되기 어려운 존재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날 밤 압복나루에 홀로 남은 야곱을 만나 그와 씨름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더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없도록 그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된 야곱은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축복을 간구하게 되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야곱은 변화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결코 이전과 같아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던 야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는 쪽으로 이긴 것입니다.

공과말씀정리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 32:26)

And He said, "Let Me go, for the day breaks." But he said, "I will not let You go unless You bless me" (Gn 32:26)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사 30:18)

(사 41:14~17)

(창 49:18)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호세아 12장 1~6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1. 1절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수단과 방법대로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가운데 번영을 누리려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대신 의지한 국가들을 기록해 보세요.
2.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일깨워 주시고자 3절에서 그들의 조상 야곱을 언급하십니다. 야곱과 북이스라엘의 공통된 잘못은 무엇입니까?
3. 그러나 야곱은 압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이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를 3~4절에서 찾아 기록해 보세요.
4. 야곱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6절을 읽고 기록해 보세요.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과 관련된 나라들을 열왕기하 17장 1절~6절에서 찾아 기록해 보세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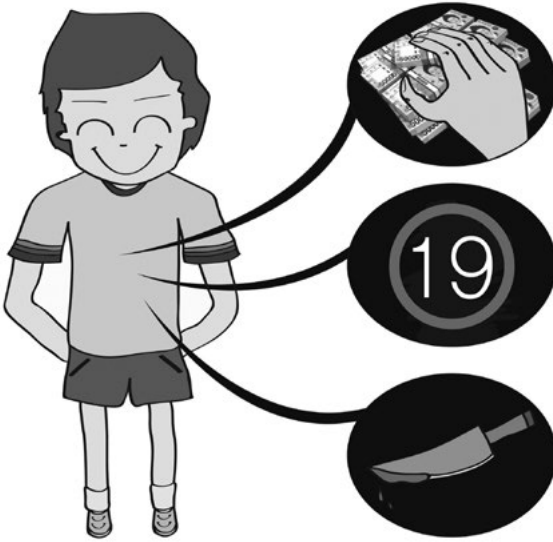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그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사로운 지혜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 마음의 죄성



성경은 인간을 '독사의 자식들이' 라고 표현 하고 있습니다.
 알을 품은 독사의 배에 독사 새끼가 바글바글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도 독사의 알(죄성)이 있어
 며칠 굶으면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면 성적인 죄도 지을 수 있고,
 전쟁터에 갖다 놓으면 살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죄의 성향이 잠재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환경만 주어지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밝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사 59:5)**

골다메이어가 철의 여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골다 메이어’는 이스라엘을 건국한 정치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노동부 장관, 외무부 장관을 거쳐 1969년 3월 17일부터 1974년 4월 11일까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총리를 역임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여성 총리였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을 지킬 뿐 아니라 중동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았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재임기간 동안 팔레스타인 테러단체인 ‘검은 9월단’이 하계올림픽대회에 참가한 이스라엘 선수 11명을 사살하는 뮌헨참사가 발생하자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를 동원하여 테러리스트를 모두 찾아내 보복하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4차 중동전쟁인 ‘욘키푸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수상 ‘마거릿 대처’가 이 별명을 이어받기 전까지 그녀는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은 후에 사람들은 그녀가 살아 생전 12년 동안이나 백혈병을 앓는 가운데 그렇게 강인한 삶을 살았음을 알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연약한 여성으로서 중병을 앓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강할 수 있었을까? 골다 메이어 총리는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 못났기에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나의 이러한 연약함은 나에게 뿐 아니라 이 나라에도 무한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실망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5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